

- 조사일자 : 2003. 2. 6.
- 조사장소 : 제주시 용담동 양창보 심방댁
- 조사자 : 김현선 외
- 구연자 : 양창보
- 채록(TAPE) · 전사 : 강정식

옛날 우렁이¹⁾ 첫동네 김해(金海) 김칩이(金宅의) 조상님이 있습니다. 김씨 하르바님이 전생(前生) 팔제(八字)가 굿어 심방이 됐습니다.

본래 탄생허기는 저 귀덕(歸德)²⁾ 새시믈 동네,³⁾ 거기 탄생헌 므을입네다. 삼형제가 솟아나 큰성, 셋성은 새설⁴⁾ 김씨 가문(家門)이라 하민(하면) 노는 새도 범접(犯接)을 못 허는 좋은 양반이(兩班의) 집안에 족은아덜로 태어났구나.

작은아덜로 태어나, 열 다섯이 넘어 장가를 가는데 처가(妻家)가 어디냐 허믄, 저 애월읍(涯月邑) 광지리(郭支里) 상동(上洞) 큰안꼴이라 허는데 고칩이 장가를 들었구나. 그리하여 혼해는 정월(正月) 초하룻날(초하룻날) 설을 지나고 명질(名節)을 지나 처갓댁(妻家宅)에 이제는 세배(歲拜)를 떡 가는데, 물을 타고 와랑치랑 광지(郭支) 들어간 세배를 헤여두고, 돌아가젠(돌아가려고) 허니 물꼬비(말고삐)를 돌린 게 광지 우의(위에) 가민 세양거리라는 그 거리가 있는데, 그릴 넘어가 저(넘어가려고) 허니, 난데없이 북소리에 대영(징) 소리에 설췌(팽과리) 소리가 막 귀에 나니, ‘이거 이상허다.’ 떡 물 알르레(아래로) 내려서, 물 구중⁵⁾ 장남보고 허는 소리가,

“이 돌을 일러라(굴려라).”

“하이고, 이런 큰돌을 나 혼자 어떻(어떻게) 일릅니까?”

“어허, ㄱ르민(말하면) 들어.”

경 허니까, 종이 가서 그 돌을 떡 거찌자(건드리자) 말자 돌이 우웃 허게 일어나. 바려보니(살펴보니) 멩도(明刀) 혼 벌이 그 소굽(속)에 잇엇구나.

“아이고, 저 멩뒤가 저 심방 앓어 덩기는 멩도니까 저거 나 앓영가민(가지고 가면) 아니 댜다. 그냥 더퍼볼라.”

더퍼두고 새시믈 들어가 그날부떠 몸이 아프기 시작허는 것이, 남대 육대 유울어(시들어) 죽지도 아니 허고, 하도 하도 답답을 허니, ‘곱곱 답답허민 심방덜 불려다 쓸대도 주고 밥을 멕이는가?’ 영 허연 문점(問占)을 허연 굿을 집안에 굿을 시작헤엿구나. 흐를, 이틀, 사흘, 나흘, 닷새가 돼여 대신맛이가 떡 당허니, 심방이 허는 말이,

“아이고 훈장님아, 눈으로 본 대로 혼번 ㄱ릅서(말하소서). 눈으로 본 것이 잇입네다(있습니다). 바른 말을 헉서(하소서).”

허연 허니, 누워둬서(누운 채로) 허는 말이,

1) 우렁이 : 제주시 외도1동의 한 마을.

2) 귀덕(歸德) :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3) 새시믈 동네 : 새시믈 동네(新西洞).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1리에 속한 동네.

4) 새설 : 새시믈.

5) 물 구중 : 말 심부름.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적에 내 처가에 세배를 갓단(갓다가) 오는 길에 하도 연물 소리가 나니, 물 알르레 내려서 우리 집이 장남보고 저 돌을 일리라 하니, 그런 큰 왕석(王石)이 제대로 일어나난, 보니까 멩도 훈 벌을 그때 눈으로 본 도례(道理)가 있다.”

“아이고, 훈장님아. 그 멩도를 가서 모사와야(모셔와야), 모사당(모셔다가) 굿을 헤여사(해야) 살 아나갓수다.”

“그러면 날 일으켜(일으켜서) 물을 테우라.”

그 아픈 몸에라도 물을 타앗언(타 가지고) 곱지에 오란 그 돌을 딱 일런 멩뒤를 모사가 큰굿을 하니, 그만 김씨 하르방이 목심(목숨)을 도면(圖免)하여 건강(健康)하게 살았구나.

허연 살아가는디, 흐를은 으름철(여름철)이라, 하도 집안이 더우니 올레에 나와서 팽나무 그늘에 시원하게 딱 앉았더니, 그만 연물⁶⁾ 소리가 나는 게 사름 귀가 굿뜰어지게(꺾뚫어지게) 연물 소리가 들리난, ‘이게 어떤 일이고?’ 그 연물 소리 들으는 걸 좇으멍 좇으멍 가는 것이, 저 정의(旌義) 예촌(禮村), 예촌⁷⁾을까지 들어갑디다. 예촌⁷⁾을 딱 들어간 베려보니, 훈 집이 안으로 스당클 맏고, 뱃깃덜로(바깥으로) 큰대를 비수와 굿을 헤염시난, 그디 들어가고,

“넘어가는 역리(逆旅) 과객(過客)이옵니다.”

“아이고, 안으로 올라옵서.”

술도 안네고 밥도 안네고, 그거를 딱 먹언 앓이니,

“자, 넘어가는 사람 술도 주고 밥도 주었으니, 나도 이런 팔제(八字) 굿언 심방이난.”

심방은 어느 거 무슨 어느 제 봐나도 안 훈 하르방이.

“에, 나도 굿이나 훈 석시 헤여드리쿠다.”

허연.

“아이고, 거 고맙습니다.”

딱 나사서 심방은 흘 줄 모르고, 글은 많이 훈 하르방이라 노난(놓으니) 글로 이렇다 저렇다 막 읊으단,

“심방 굿이랑 곱게 허영 잘 모칩서(마치시오) 마는, 사름덜 동원시켜서 저 지붕 상⁸⁾루를 헤칩서.”

경헤연 보니, 그 집엔 어떤 따문에(때문에) 굿을 허는고 하니, 딸은 나도 아덜이 엇이난, 첩(妾)을 헤여서, 첩을 헤여서 애기를, 아덜이나 하나 낳아보젠(낳아보자고) 첩을 하니, 첩은 아기를 아니 베고, 본부인은 오꼳 아덜을 낳아부런. 본부인은 아덜을 나난, 첩은 이젠 부애(부아)가 잔뜩 나난, 본처(本妻)에 아덜을 죽이젠(죽이려고), 고양이를 죽여놓고 여자 속에 입는 속곳에 싸가지고 그걸 상⁸⁾루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묻엇구나. 게 그 동토(動土)로 하여 그 집이 아덜이 곧 죽게 뒤텔거든.

“사름덜을 헤여 저 지붕을 파라.”

지붕을 딱 파보니, 고녕이, 제주도 말로는 고녕이엔(고녕이라고) 허주마는, 고양이가 죽은 걸 저기다 판 묻어시난(묻었으니),

“저거를 갓다 지왕⁷⁾ 불살르라.”고.

다 술아서(사라서) 올려 부렸더니 그 아기가 오골오골오골⁸⁾ 이제는 살아난. 그 굿을 곱게 잘

6) 연물 : 무악기.

7) 지왕 : 내려서.

8) 오골오골오골 : 잔뜩 움츠리고 있던 몸을 펴는 모양.

ㅁ찬(마치고) 나오젠(나오려고) 허여가니,

“어디 사는 누구, 어떤 어른이꽈(어른입니까). 주소(住所)라도 ㅎ끔(조금) 골아동(말하여두고) 갑서.”

“저 귀덕 새시ㅁ를 동네 사는 김씨(金氏)라 헤여.”

영 헤여돈, 집안 안네 오랏구나.

오난, 아이고, 정(그렇게) 허연 이젠 ㅎ 뒤 들(두어 달) 시난(있으니), 그 집이선 아덜 살려쨌젠 (살려주었다고) 공리(功利)를 가프젠(값으려고) 허여, 소 말덜을 내여놔 곡식(穀食)을 잔뜩 실르고 (싱고) 미녕(무명)을 멧 십필(十疋) 헤여놓고, 물에 실러 가지고, 귀덕 새시ㅁ를을 떡 들어간,

“여기 김씨 심방이 어디서 삽니까?”

“아, 심방이, 김씨 심방이 없는디 어떻 ㅎ 일인고. 이 동네 우리 김씨 심방이 전연 없는데.”

츠마이(차마) 그 하르방이 가서 ㅎ ㅎ 줄을 누게가(누구가) 압니까, 그 동네 사름덜은, 전연 모 르난, 하도 좇아가난, 방안네 앓앗단, 김씨 심방을 좇는 말은 떡 들어놓고, 그 하르방이 떡 밧깃 디(바깥에) 나오란,

“이레덜(이리들) 오라.”

불러다 놓고,

“어찌 나를 좇느냐?”

“우리 아덜 살려준 은혜(恩惠) 공(功)을 값으려 왔습니다.”

“어허, 이거를 밧젠(받으려고) 너네 집에 가선 내가 ㅎ ㅎ 게 아니다. 전부 도로 가져가라.”

“아이고, 훈장님아. 이거 우리 가전 온 음식(飮食)을 어떻게 다 이제 또 가지고 갑니까.”

“그러면 다 내려노라.”

떡 내려놓고 그 사름덜은 돌아가부니, 이 하르방이 일가(一家)고 친적(親戚)덜 전부 모여와, 다 모여다 놓고 곡식(穀食)이니 미녕(무명)이니 전부 똑같이 갈라주어(나눠주어) 두고, ‘아이고, 난 이 ㅁ을 떠야 댜다.’ 떡 이젠 귀덕을 떠서, 어덜 오는고 허니, 이호(梨湖)⁹⁾ 이동(二洞) 오도롱이 ㅎ ㅎ 마을이 있어, 그 아래 보면은 덕지답¹⁰⁾ 위에 조그만 ㅎ 동네가 있어, 지금 ㅎ 다섯 가호(家戶)쯤은 사는데, 그게 골왓동네라고 허는데, 골왓디 오란(와서) 떡 집을 지어 사는디, 그때부떠 는 상단골(上丹骨) 중단골(中丹骨) 떡 거느리고, 큰굿 족은굿 그자(그저) 소미(小巫) 양종을 거느 리고, 멥두도 지어놓고 헤여서 큰 심방이 뉘엿십네다.

헤여 살아가는디, 제주도 그만 ㅎ년(凶年)이 들어놓고, ㅁ물아(가물어) 놓고, 비가 아니 오라서 농사를 못 지어 사름은 죽게덜 되고, 아이고, 이거 김씨 심방이 관가이(官家에) 놀려들어(달려들 어) 목사님 앞이 간 무릎 꿇어,

“ㅎ번 기우제(祈雨祭)를 지나보겠습니다.”

“만약에 기우제를 지나서 비가 아니 오면 어찌 하겠느냐?”

“저 목을 올리겠습니다.”

“어, 경 허면은 ㅎ번 기우제를 지나보라.”

용(龍)은 만들뉘 서른 세 발을 떡 지러기(길이)를 용을 만들어 놓고, 어디로 가는고 허니, 용연(龍淵)¹¹⁾ 용수깅(龍湫 끝)으로 내려샅구나. 내려산 불휘(뿌리)는 용수레 놓고, 머리는 쨌상을(祭床

9) 이호(梨湖) : 제주시 이호동.

10) 덕지답 : ‘-답’은 허(虛)한 방위로 사기(邪氣)가 비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쌓은 돌담. 달리 거옥, 격대 등으로도 불린다.

11) 용연(龍淵) : 제주시 용담동 한내(漢川) 하류에 있는 소(沼).

예) 싱건(심어서) 젓상드레 놓고, 그래서 그 용을 모사놓고(모셔놓고), 좋은 제물(祭物)을 헤여놓고, 그 기우제를 굿을 떡 허연, 목사가 좌정(坐定)허니 그디 간,

“굿을 다 ㅁ춧습니다(마쳤습니다).”

“어때민(어느 때면) 좋느냐?”

“넬 열두 시가 됴민 거 정오(正午)가 됴민 비가 내릴 겁니다.”

“만약에 비가 아니 내리면 어찌 하겠느냐?”

“저 목을 올리갯습니다.”

헤연 장담을 헤여두고, 뒷날 열두 시에 그 날이 좋던 날이 그냥 열두 시가 됴난 먹구름이 편들 번들 떠오더니 그냥 뇌성백락(雷聲霹靂)을 치뵈, 큰비가 그냥 쏟아지엇구나.

영 허난, 제주 백성덜(百姓들) 농사를 지언 살려노니, 목사가 흐는 소리가,

“너는 이제는 심방을 그만 허라. 그만허여도 만백성(萬百姓)을 살렸으니 더 이상은 아니 헤여도 좋다.”

그래서 통정대부(通政大夫)라 직함(職銜)을 떡 내여주고,

“우리가 관가(官家)이서 집을 지어 줄 터이니, 가 살아라.”

허는 것이, 저 외도(外都) 일동(一洞) 우렁이라는 동네 섯동네 가서 떡 큰집을 지어노니, 스칸(四間) 집으로 지어난, 그디서 종덜 거느리고 부제로 잘 살안.

그 하르바님이 장손(長孫)이 지금, 종손(宗孫)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경 허여, 이 하르바님이 허여 멩두는 어디 갓는고 허니, 요거 시(市)에¹²⁾ 서사라에¹³⁾ 삽니다. 이태이라고 허는 심방이 잇는데 그 사람이 지금 멩두를, 모신 멩뒤가 그 김씨 하르방 멩뒤가 글로 전승(傳乘)이 됴연, 지금?지도 모사서(모셔서) 큰굿을 합니다. 영 허는 것이 그 하르방 손(孫)이 멩 대(代)가 내려왔느냐 허면은, 지금 이십 삼대(二十三代)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그 멩두가 이십 삼대면은 멩년이 웰 겁니까. 적아도(적어도) 오백년(五百年)은 넘엇주. 그런 멩두가 지금 훈벌이 뚜렷허게 남아 있습니다.

- 濟州市 龍潭洞 男巫 양창보 口誦

현용준·강정식·김현선,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pp.179-183.

12) 시(市) : 제주시.

13) 서사라 : 제주시 서쪽 동네. 삼도동에 속한 곳으로 용담동과 바로 이웃함.